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 硏究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박진우·이병욱·백진웅*

Extended indications of Soyang-type Hyeongbangpaedok-san using『Dongeuibogam』

Park Jin-Woo · Lee Byung-Wook · Baek Jin-Ung*
Division of Human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Indications of Hyeongbangpaedok-san for Soyang-type on『Donguisusebowon』are small.

Therefore, indications of Hyeongbangpaedok-san for Soyang-type need to be extended for broader clinical use. There would be some methods to do that, and we could review『Dongeuibogam』that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s are based on. We reviewed Hyeongbangpaedok-san, Insampaedok-san which is the origin of Hyeongbangpaedok-san, and their modified formula(加減方) on『Dongeuibogam』.

As a result, we supposed 12 indications of non-classical formula(後世方) Hyeongbangpaedok-san, 2 indications of modified formula of non-classical formula Hyeongbangpaedok-san, and 12 indications of Insampaedok-san and its modified formula as possible indications of Hyeongbangpaedok for Soyang-type.

Key Words :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Dongeuibogam, Soyang-type(少陽人), Hyeongbangpaedok-san(荊防敗毒散), Insampaedok-san(人蔘敗毒散), Extended indications

Ⅰ. 序 論

四象醫學의 原典인『東醫壽世保元』에는 모두 67개의 體質處方이 수록되어 있는데[1], 이 處方들의 適應證으로『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내용 만으로는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病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즉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병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체질별 四象方들의 適應證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證狀別로 각 體質別 四象方 및 加減方을 제시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2], 四象方의

* 교신저자 : 白晋雄. 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Tel : 051-510-8452 E-mail : mukjagan@naver.com
접수일(2011년 10월 10일), 수정일(2011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2011년 11월 22일)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6, 701, 716, 724.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 新定 太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 新定 太陽人病 應用設方藥 二方"

www.kci.go.kr

문헌적 근거를 파악한 후 그 문헌의 폭넓은 탐색을 통해 四象方 適應證의 확장을 도모하는 문헌적 탐구 방법을 채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著者는 이미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의 문헌적 근거를 파악한 후 그 문헌의 폭넓은 탐색을 통해 四象方 適應證의 확장을 도모하는 문헌적 탐구 방법을 제시하고 또 그 구체적 예를 제시한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硏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3]라는 선행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선행 연구에서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 중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었는데, 문헌 탐색을 통한 四象方 適應證 확장 연구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개의 四象方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 역시 있었다. 문헌 탐색을 통한 四象方 適應證 확장 연구의 충실성을 위해선 四象方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少陽人 荊防敗毒散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시작하였고[4], 일정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연구 방법

선행 연구에서 著者는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대부분의 病證 및 處方 관련 내용들이 『東醫寶鑑』에서 인용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東醫寶鑑』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旣存 醫學 내용의 기본 出典이라고 할 수 있다."[5]라는 주장과 "『東醫寶鑑』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기존 醫學의 病證 및 處方의 出典이지만 방대한 분량 중에서 실제 인용된 부분이 극히 적음을 고려할 때, '『東醫寶鑑』의 나머지 부분을 체질적으로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다.'[6]라는 의견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7]라는 주장을 토대로 『東醫寶鑑』을 四象方 適應證 확장 연구를 위한 검토 대상 문헌으로 삼았다. 그리고 四象 處方名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東醫寶鑑』에서 관련 문장을 추출한 후 그 문장 내용을 분석하여 四象方 適應證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제시 및 채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 處方이 荊防敗毒散이므로 '荊防敗毒散'이란 處方名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東醫寶鑑』에서 관련 문장을 추출 및 분석함으로써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東醫寶鑑』에 수록된 敗毒散의 종류를 살펴보면 加味敗毒散, 三黃敗毒散, 消疳敗毒散, 消風敗毒散, 連翹敗毒散, 人蔘敗毒散, 荊防敗毒散의 일곱 종류이다[8]. 이 중에서 人蔘敗毒散은 荊防敗毒散의 原方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人蔘敗毒散'과 人蔘敗毒散을 지칭하는 略語인 '敗毒散'도 검색어로 사용하여 관련 문장을 추출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東醫壽世保元』原文은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敎室에서 공통으로 출간한 교재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改訂增補 四象醫學』[9]에 수록된 辛丑本 原文을 底本으로 삼았고,『東醫寶鑑』原文은 그 동안의 校勘 연구 성과가 충실히 반영되었고 또 추가 작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對譯東醫寶鑑』[10]에 수록된 原文을 底本으로 삼았다.

2)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硏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28.

3)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硏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p.27-47.

4) 많은 四象方 중에서 少陽人의 중요 處方 중 하나인 荊防敗毒散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 少陰人의 중요 處方 중 하나인 補中益氣湯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체질의 대표 處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5)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硏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29.

6) 이필우, 윤창렬. 東醫壽世保元 인용문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제12권 2호. p.84.

7)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硏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29.

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2175-2205.

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서울. 집문당. 2011.

www.kci.go.kr

2.『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검토

1)『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少陽人 荊防敗毒散證 및 後世方 荊防敗毒散證

少陽人 및 後世方 荊防敗毒散證과 관련해『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中에서

가. "張仲景이 말하기를 '太陽病에 걸려 脈이 浮緊하고 發熱하고 惡寒하고 몸이 아프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번조한 경우에는 大靑龍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언급해보면, 發熱하고 惡寒하고 脈浮緊하고 몸이 아프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번조한 증상은 少陽人의 脾受寒 表寒病이다. 이 증상에는 大靑龍湯은 적당하지 않고 荊防敗毒散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11]

나.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눈이 어찔하고 귀가 안 들리고 가슴과 옆구리가 가득 찬 듯하고 혹 발열과 오한이 번갈아가며 있으면서 구토하는 경우는 少陽經의 이상에 속하는데, 嘔吐나 泄瀉를 시켜서는 안 되고 小柴胡湯으로 和法을 쓰는 것이 좋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언급해보면, 이러한 경우에 小柴胡湯은 적당하지 않고 荊防敗毒散이나 荊防導赤散이나 荊防瀉白散 중에서 골라 쓰는 것이 좋다[12].

다. "후대의 龔信이 창방한 荊防敗毒散이 少陽人 表寒病에 三神山의 不死藥이 아니겠는가!"[13]

라. "少陽人이 傷寒病에 걸렸을 때 두 번 세 번 아픈게 재발하고 이때마다 땀을 내고 나서야 낫는 경우가 있다. 이 病은 風寒에 두 번 세 번 침범되어 두 번 세 번 아파서 땀을 내고 낫는 게 아니다. 少陽人이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惡寒과 發熱이 번갈아가며 왔다가고 귀가 안 들리고 가슴이 그득한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는 원래 이렇다. 表邪가 깊이 맺혀 있기 때문에 세 번 아픈 후에야 낫는 것이다. 처음 아프건 두 번째 아프건 세 번째 아프건 荊防敗毒散이나 荊防導赤散이나 荊防瀉白散 중에서 골라 매일 二貼씩 병이 나을 때까지 복용하고, 병이 나은 후에 또 十餘貼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하면 나중에도 병 없이 완전히 건강해진다[14].

마. "少陽人이 갑자기 구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이한 증상이 생긴다. 이때에는 荊防敗毒散을 사용한 후 경과를 살피는데, 만약 몸에 열이 있고 頭痛하고 泄瀉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石膏를 쓰고, 몸이 차고 頭痛하고 泄瀉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黃連과 苦參을 써야 한다[15].

②「少陽人 胃受熱 裏熱病論」中에서

"少陽人이 表病으로 頭痛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荊防敗毒散을 사용하고, 少陽人이 裡病으로 大便을 하루 넘게 못 보는 증상이 있으면 白虎湯을 사용한다."[16]

---

1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15.

1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81.
"張仲景曰 太陽病 脈浮緊 發熱 惡寒 身痛 不汗出而 煩躁者 大靑龍湯主之 論曰 發熱 惡寒 脈浮緊 身痛 不汗出而煩躁者 卽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也 此證 不當用 大靑龍湯當用 荊防敗毒散"

1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82.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論曰 此證 不當用 小柴胡湯 當用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1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82.
"後來龔信所製 荊防敗毒散 豈非少陽人表寒病 三神山不死藥乎"

1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83.
"少陽人 傷寒病 有再痛三痛發汗而愈者 此病 非再三感風寒而再痛發汗三痛發汗也 少陽人 頭痛腦强 寒熱往來 耳聾胸滿 尤甚之病 元來如此 表邪深結 至於三痛然後 方解也 無論初痛再痛三痛 用 荊防敗毒散 或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每日二貼式 至病解而用之 病解後 又用十餘貼 如此則自無後病而完健"

1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85.
"少陽人 忽然有吐者 必生奇證也 當用 荊防敗毒散 以觀動靜而 身熱 頭痛 泄瀉者 用石膏無疑 身寒 頭痛 泄瀉者 用黃連·苦參無疑"

1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92.
"凡 少陽人 表病 有頭痛證則 必用 荊防敗毒散 裡病 有大

www.kci.go.kr

③「少陽人 泛論」中에서

"少陽人이 瘧疾로 이틀에 한 번씩 발작하는 질병을 勞瘧이라고 하는데, 완만하게 치료해야지 급하게 치료하면 안 된다. 이 증상의 경우, 瘧疾이 발작하지 않는 날에는 獨活地黃湯 二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복용하고, 瘧疾이 발작하는 날에는 미리 荊防敗毒散 二貼을 달여 기다렸다가 惡寒이 발작하면 二貼을 연속해서 복용한다. 한달 동안 獨活地黃湯 四十貼과 荊防敗毒散 二十貼을 기준으로 삼으면 瘧疾이 반드시 치료된다."[17]

④「元明二代醫家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中에서

"荊防敗毒散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荊芥穗 防風 枳殼 桔梗 川芎 人蔘 甘草 各 1錢 薄荷 약간, 이 處方은『醫鑑』에 '傷寒이나 유행성 질환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팔다리가 저린 것을 치료한다.'라고 실려 있다. 지금 이것을 少陽人 체질에 맞게 수정하면, 이 處方에서 枳殼과 桔梗과 川芎과 人蔘과 甘草를 제거한다."[18]

⑤「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中에서

"荊防敗毒散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荊芥 防風 赤茯苓 生地黃 地骨皮 車前子 各1錢, 이 處方은 머리가 아프고 惡寒과 發熱이 번갈아가며 왔다가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좋다."[19]

上記한 내용 중에서「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中에서 발췌한 ①번을 살펴보면 모두 다섯 단락의 내용이 있는데, '가'번에서는 "張仲景의『傷寒論』적 관점에서 볼 때 太陽證으로 脈이 浮緊하고 發熱하고 惡寒하고 몸이 아프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번조한 경우는 少陽人의 脾受寒 表寒病에 해당하고 이때는 荊防敗毒散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함으로써 荊防敗毒散의 適應證으로 "發熱하고 惡寒하고 脈浮緊하고 몸이 아프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번조한 증상"을 제시하였다. '나'번에서는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눈이 어찔하고 귀가 안 들리고 가슴과 옆구리가 가득 찬 듯하고 혹 發熱과 惡寒이 번갈아가며 있으면서 구토하는 증상"을 荊防敗毒散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다'번과 '라'번에서는 구체적 適應證을 제시하지 않았고, '마'번에서는 "少陽人이 갑자기 嘔吐하는 경우 일단 투여한 후 경과를 살피는 용도"로 荊防敗毒散 適應證을 제시하였다.

「少陽人 胃受熱 裏熱病論」中에서 발췌한 ②번을 살펴보면, "表病으로 頭痛이 있는 증상"을 荊防敗毒散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少陽人 泛論」中에서 발췌한 ③번을 살펴보면, "瘧疾로 惡寒하는 경우"를 荊防敗毒散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元明二代醫家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中에서 발췌한 ④번을 살펴보면, "傷寒이나 유행성 질환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팔다리가 저린 증상"을 荊防敗毒散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荊防敗毒散은 四象方이 아니라 소위 後世方 荊防敗毒散의 適應證이기 때문에 少陽人 荊防敗毒散 適應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목에서 이미 '少陽人病에 사용해 온 중요한 藥'이라고 밝혔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 病證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少陽人 체질에 맞추기 위해 枳殼·桔梗·川芎·人蔘·甘草를 제거해야 한다는 언급만 한 것을 볼 때, 여기에 제시된 適應證을 四象方 荊防敗毒散의 適應證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中에서 발췌한 ⑤번을 살펴보면, "頭痛과 寒熱往來 증상"을 荊防敗毒散 適應證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 중 중복되는 適應證을 요약 및 정리하여

便過一晝夜不通證則 用 白虎湯"

1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696-697.
"少陽人 瘧疾 有間兩日發者 卽 勞瘧也 可以緩治 不可急治 此證 瘧不發日 用 獨活地黃湯 二貼 朝暮服 瘧發日 預煎 荊防敗毒散 二貼 待惡寒發作時 二貼連服 一月之內 以獨活地黃湯 四十貼 荊防敗毒散 二十貼 爲準的則 其瘧 必無不退之理"

1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700.
"荊防敗毒散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荊芥穗 防風 枳殼 桔梗 川芎 人蔘 甘草 各 1錢 薄荷 少許 此方 出於醫鑑書中 治傷寒 時氣發熱 頭痛項强 肢體煩疼 今考更定 此方當去 枳殼 桔梗 川芎 人蔘 甘草"

1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701.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荊芥 防風 赤茯苓 生地黃 地骨皮 車前子 各1錢 右方 治頭痛 寒熱往來者 宜用"

www.kci.go.kr

총괄하면, 『東醫壽世保元』에는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으로 “少陽人이 傷寒으로 發熱하고 惡寒하고 脈浮緊하고 몸이 아프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번조한 증상”, “少陽人이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눈이 어찔하고 귀가 안 들리고 가슴과 옆구리가 가득 찬 듯하고 혹 發熱과 惡寒이 번갈아가며 있으면서 구토하는 증상”, “少陽人이 갑자기 구토하는 경우”, “少陽人이 瘧疾로 惡寒하는 경우”, “少陽人이 傷寒이나 유행성 질환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팔다리가 저린 증상”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少陽人 荊防敗毒散證

연번	證狀
1	少陽人이 傷寒으로 發熱하고 惡寒하고 脈浮緊하고 몸이 아프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번조한 증상
2	少陽人이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눈이 어찔하고 귀가 안 들리고 가슴과 옆구리가 가득 찬 듯하고 혹 發熱과 惡寒이 번갈아가며 있으면서 구토하는 증상
3	少陽人이 갑자기 구토하는 증상
4	少陽人이 瘧疾로 惡寒하는 증상
5	少陽人이 傷寒이나 유행성 질환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팔다리가 저린 증상

2) 『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荊防敗毒散 및 加減方證

『東醫寶鑑』에 後世方 荊防敗毒散과 관련된 내용은 「內景篇」에 0곳, 「外形篇」에 3곳, 「雜病篇」에 4곳, 「湯液篇」과 「鍼灸篇」에 0곳으로 모두 7곳에 收錄되어 있다.

이 중 原方과 관련된 내용은 「外形篇」에 1곳, 「雜病篇」에 4곳으로 모두 5곳에 수록되어 있고, 加減方과 관련된 내용은 「外形篇」에만 2곳에 수록되어 있다.

後世方 荊防敗毒散의 原方인 人蔘敗毒散 및 그 加減方은 「內景篇」에 3곳, 「外形篇」에 3곳, 「雜病篇」에 9곳, 「湯液篇」과 「鍼灸篇」에 0곳으로 모두 15곳에 收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引用한 후 각각의 考察을 통해 荊防敗毒散 適應證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0].

(1) 『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荊防敗毒散 原方과 관련된 내용

①【外形篇·面·搭頸腫】

“얼굴이 붓는 증상으로 자시라고도 한다. 風熱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열이 쌓여 발생한다. 升麻黃連湯이나 升麻胃風湯이나 荊防敗毒散을 쓴다.”[21]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荊防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은 “風熱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열이 쌓여 발생한 얼굴이 붓는 증상”이다.

②【雜病篇·瘟疫·瘟疫治法】

“(瘟疫)의 表證에는 荊防敗毒散을 쓴다 ~ 瘟疫과 大頭瘟을 치료한다.”[22]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瘟疫과 大頭瘟에 사용한다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荊防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같은 ‘瘟疫門’의 ‘瘟疫形證’ 항목을 보면 다양한 瘟疫 증상들이 언급되어 있다[23]. 또 ‘大頭瘟證’ 항목을 보면 다양한 大頭瘟 증상들이 언급되어 있다[24]. 이 중 瘟疫 증상은 “열이

20) 後世方 荊防敗毒散과 그 加減方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아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後世方 人蔘敗毒散과 그 加減方은 모두 荊防敗毒散 加減方의 일종이므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검토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後世方 人蔘敗毒散과 그 加減方은 後世方 荊防敗毒散 加減方 항목에 편입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處方名 자체가 다르므로 따로 항목을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2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97.
“頸腫 亦名疹頸 因風熱或膏粱 積熱而作 宜升麻黃連湯或升麻胃風湯 或荊防敗毒散”

2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50.
“表證 用荊防敗毒散 ~ 治瘟疫 及大頭瘟”

2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49.
“○ 冬合寒反暖 春發瘟疫 其證 發熱 腰痛强急 脚縮不伸 脇中欲 目中生花 或濇濇增寒復熱. ○ 春合暖反凉 夏發燥疫 其證 身體戰掉 不能自禁 或內熱口乾 舌破咽塞聲嘶. ○ 夏合熱反寒 秋發寒疫 其證 頭重頸直 皮肉强痺 或蘊而結核 起於咽喉 頸項之側 布熱毒於皮膚分肉之中. ○ 秋合凉反陰雨冬發濕疫 其證,乍寒乍熱 損傷肺氣 暴嗽嘔逆 或體熱發斑喘咳引氣(三因).○ 感四時不正之氣 使人痰涎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 項强睛疼 或飮食如常 寄居依舊 甚至聲啞或赤眼 口瘡大小 腮腫喉痺 咳嗽稠粘 噴嚏(醫鑒)”

2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53.
“○ 大頭病者 感天地四時 非節瘟疫之氣 所着以成此疾 至

www.kci.go.kr

나고, 허리가 아프면서 뻣뻣하고, 다리가 수축되어 펴지 못하고, 정강이뼈 안이 끊어지는 것 같고, 눈앞에 꽃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으슬으슬 오한이 들고는 또 열이 난다.", "몸이 떨려 스스로 멈출 수 없고, 혹은 속에서 열이 나며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목이 마르고 목소리가 쉰다.",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뻣뻣하고, 피부와 근육이 뻣뻣하며 저리고, 혹은 사기가 쌓여서 멍울이 생기는데 인후부와 목 부위에서 생긴다.", "잠깐 오한이 났다가 잠깐 열이 나고, 폐기가 손상되어 심한 기침과 구역질이 나고, 혹은 몸에 열이 나면서 발진이 돋고, 숨이 가쁘면서 기침이 난다.", "痰涎이 많이 막혀서 煩熱이 나고, 머리와 몸이 아프고, 오한이 심하고 고열이 나고, 목이 뻣뻣하고 눈동자가 아프고, 혹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이나 심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이 붉어지고, 입이 헐고, 뺨이 붓고, 목 안이 마비되고, 기침과 끈끈한 가래가 나오고, 재채기를 한다."의 다섯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또 大頭瘟 증상은 "곪고 터져서 고름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머리가 아프고 한 말을 담는 그릇만큼이나 붓는다.", "귀의 앞뒤에서나 혹은 턱에서부터 붓는다.", "머리와 얼굴이 붓고 아프고 부스럼이 생기고, 심하면 목구멍이 막혀 사람이 죽는다.", "코 · 얼굴 · 귀 · 목 · 목구멍이 붉게 붓는데, 몽우리는 없고 뿌리가 있는 멍울이 생기고, 오한이 나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심하면 정신이 어지러워 편하지 않으면서 목구멍이 꽉 막힌다."의 다섯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비록 양상이 다양하지만 모두 瘟疫과 大頭瘟의 증상임이 분명하므로 이 인용문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증상 모두를 荊防敗毒散의 適應證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於潰裂膿出 而又染他人 所以謂之疫癘 大抵 足陽明邪熱太甚資實 少陽相火爲熾濕熱 爲腫 木盛爲痛 多在少陽 或在陽明 陽明爲邪 首大腫 少陽爲邪 出於耳前後(海藏). ○ 大頭病者 頭痛 腫大如斗 是也. 大率 多是 天行時疫病也(綱目). ○ 天行一種 名曰大頭病 俗呼爲猩頭瘟 從耳前後腫起 名曰蝦蟆瘟, 從頤頷腫起 名曰 頤蕃瘟, 甚爲凶惡 染此者 十死八九 宜推運氣治之(正傳). ○ 大頭腫 又名雷頭風 其證頭面腫痛 疙瘩 甚則咽喉堵塞 害人最速 冬溫後 多有此病(入門). ○ 大頭瘟 亦謂之 時毒初發 狀如傷寒 五七日之間 乃能殺人 其候 發於鼻面耳項咽喉赤腫無頭 或結核有根 令人增寒發熱 頭痛 肢體痛, 甚者 恍惚不寧 咽喉閉塞(精義)."

③【雜病篇 · 瘟疫 · 大頭瘟治法】

"(瘟疫)의 表證에는 荊防敗毒散을 쓴다."[25]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荊防敗毒散을 瘟疫 表證에 쓴다고 하였을 뿐 그 구체적 증상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바로 앞 ②번 항목에서 瘟疫 病證 전체를 살펴보았으므로 이 인용문은 ②번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따로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④【雜病篇 · 瘟疫 · 大頭瘟治法】

"(大頭瘟이) 3~4일 지나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荊防敗毒散을 쓴다[26].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荊防敗毒散을 瘟疫 表證에 쓴다고 하였을 뿐 그 구체적 증상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②번 항목에서 大瘟疫 病證 전체를 살펴보았으므로 이 인용문도 ②번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따로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⑤【雜病篇 · 瘟疫 · 大頭瘟治法 · 二聖救苦丸】

"萬曆 丙戌年(1586년)에 내가 大梁에 있을 때 瘟疫이 크게 유행하여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심지어는 滅門하기도 하였다. 그 증상은 惡寒과 發熱이 심하고, 머리와 얼굴과 목이 붉은 색으로 붓고, 목구멍이 붓고 아프고, 정신이 흐릿해지는데 이를 大頭瘟이라고 한다 ~ 허약한 사람은 먼저 荊防敗毒散을 쓰고 낫지 않으면 牛蒡芩連湯을 쓰면 역시 효과가 있다.[27]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荊防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은 "惡寒과 發熱이 심하고, 머리와 얼굴과 목이 붉은 색으로 붓고, 목구멍이 붓고 아프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증상"이다. 이 인용문에 제시된 증상은 ②번 항목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신이 흐릿해진다"는 새로운 증상이 있으므로 ②번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다루었다.

2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53.
"表證多者 荊防敗毒散"

26)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53.
"經三四日不解者 宜荊防敗毒散"

2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55.
"萬曆丙戌 余寓大梁 屬瘟疫 大作 士民多斃 甚至滅門 其證增寒壯熱 頭面頸項赤腫 咽喉腫痛 昏憒 名曰大頭瘟 余發一秘方 名二聖救苦丸 用牙皂 以開關竅 而發其表 用大黃 以瀉 諸火而通其裏 一服卽汗 一汗卽愈 眞仙方也 稟壯者 百發百中 虛弱者 先服荊防敗毒散 若未愈 用牛蒡芩連湯 亦效"

www.kci.go.kr

지금까지 살펴본 5개 항목 중에서 ②번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 없는 ③번과 ④번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3개의 항목에서 제시된 後世方 荊防敗毒散 適應證을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東醫寶鑑』에 수록된 後世方 荊防敗毒散證 중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

연번	東醫 寶鑑 篇名	證狀
1	【外形篇·面·搭腮腫】	風熱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열이 쌓여 발생한 얼굴이 붓는 증상
2	【雜病篇·瘟疫·瘟疫治法】	<瘟疫 증상> ○ 열이 나고, 허리가 아프면서 뻣뻣하고, 다리 수축되어 펴지 못하고, 정강이뼈 안이 끊어지는 것 같고, 눈앞에 꽃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으슬으슬 오한이 들고는 또 열이 나는 증상 ○ 몸이 떨려 스스로 멈출 수 없고, 혹은 속에서 열이 나며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목이 마르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 ○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뻣뻣하고, 피부와 근육이 뻣뻣하며 저리고, 혹은 사기가 쌓여서 멍울이 생기는데 인후부와 목 부위에서 생기는 증상 ○ 잠깐 오한이 났다가 잠깐 열이 나고, 폐기가 손상되어 심한 기침과 구역질이 나고, 혹은 몸에 열이 나면서 발진이 돋고, 숨이 가쁘면서 기침이 나는 증상 ○ 痰涎이 많이 막혀서 煩熱이 나고, 머리와 몸이 아프고, 오한이 심하고 고열이 나고, 목이 뻣뻣하고 눈동자가 아프고, 혹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이나 심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이 붉어지고, 입이 헐고, 빰이 붓고, 목 안이 마비되고, 기침과 끈끈한 가래가 나오고, 재채기를 하는 증상 <大頭瘟 증상> ○ 곪고 터져서 고름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증상 ○ 머리가 아프고 한 말을 담는 그릇만큼이나 붓는 증상 ○ 귀의 앞뒤에서나 혹은 턱에서부터 붓는 증상 ○ 머리와 얼굴이 붓고 아프고 부스럼이 생기고, 심하면 목구멍이 막혀 사람이 죽는 증상 ○ 코·얼굴·귀·목·목구멍이 붉게 붓는데, 몽우리는 없고 뿌리가 있는 멍울이 생기고, 오한이 나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심하면 정신이 어지러워 편하지 않으면서 목구멍이 꽉 막히는 증상
3	【雜病篇·瘟疫·大頭瘟治法·二聖救苦丸】	惡寒과 發熱이 심하고, 머리와 얼굴과 목이 붉은 색으로 붓고, 목구멍이 붓고 아프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증상

(2)『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荊防敗毒散 加減方과 관련된 내용

①【外形篇·咽喉·咽喉痛】

"咽喉가 건조하고 항상 털로 찌르는 것 같고 삼킬 때 불편한 경우는 風燥 때문이다. 荊防敗毒散(處方은 寒門을 보라)에 薄荷와 黃芩과 半夏를 추가하고 桔梗을 배로 하고 生薑을 넣어서 달여 먹는다."[28]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荊防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은 "咽喉가 건조하고 항상 털로 찌르는 것 같고 삼킬 때 불편한 증상"이다.

②【外形篇·皮·癮疹·淸肌散】

"癮疹이 혹 붉거나 희면서 가려운 증상을 치료한다. 淸肌散은 荊防敗毒散에 天麻와 薄荷와 蟬殼을 더하고 生薑 세 쪽을 넣어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29]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荊防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은 "癮疹이 혹 붉거나 희면서 가려운 증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2개의 항목에서 제시된 後世方 荊防敗毒散 加減方 適應證을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東醫寶鑑』에 수록된 後世方 荊防敗毒散 加減方證 중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

연번	東醫寶鑑 篇名	證狀
1	【外形篇·咽喉·咽喉痛】	咽喉가 건조하고 항상 털로 찌르는 것 같고 삼킬 때 불편한 증상
2	【外形篇·皮·癮疹·淸肌散】	癮疹이 혹 붉거나 희면서 가려운 증상

2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715.
"咽喉乾枯 常如毛刺 吞嚥有碍者 風燥也 荊防敗毒散 方見寒門 加薄荷 黃芩 半夏 倍桔梗 入生薑煎服"

29)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802.
"治癮疹 或赤 或白 瘙痒 荊防敗毒散加天麻 薄荷 蟬殼 入生薑三片 水煎服"

www.kci.go.kr

(3)『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人蔘敗毒散 및 그 加減方과 관련된 내용

①【內景篇·大便·噤口痢】

"痢疾을 앓으면서 飮食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속칭 '噤口痢'라고 한다. 만약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에 열이 나는 경우는 毒氣가 心肺를 침범한 것인데, 이때는 敗毒散(處方은 寒門을 보라) 20g에 蓮肉 4g과 陳米 100알과 生薑 3쪽과 大棗 2쪽을 넣어서 달여 먹는다 ~ 噤口痢로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뜨겁고 머리가 아픈 것은 毒氣가 心肺를 침범하기 때문에 구토하고 먹지 못하는 것이다. 人蔘敗毒散(처방은 위쪽을 보라)에 黃連 4g과 石蓮肉 7개와 陳蒼米 300개와 生薑 3쪽과 大棗 2개를 함께 넣고 달여 복용한다."[30]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은 "痢疾을 앓으면서 구토하고 飮食을 먹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에 열이 나는 증상"이다.

②【內景篇·大便·疫痢】

"어른과 아이가 비슷한 증상을 앓는 것을 疫痢라고 한다. 人參敗毒散(處方은 위를 보라)에 陳皮와 白芍藥을 넣어 달여 먹거나 薑茶湯을 복용해 예방한다."[31]

【考察】이 인용문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비슷한 痢疾 증상을 앓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같은 '大便門'의 '瀉與痢不同' 항목에서 "泄瀉의 증상은 음식이 혹 소화되거나 혹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데, 힘을 주지 않아도 나오고 피로감을 느낀다. 하지만 痢疾은 다르다. 고름 혹 피, 혹은 고름과 피가 섞인 것, 혹은 기름때 같은 것, 혹은 糟粕이 없기도 하고 혹은 糟粕이 섞기기도 한 것이 나온다. 비록 통증이 있거나 혹은 없다는 차이는 있으나 모두 급히 대변을 보고 싶으나 막상 화장실에 가면 뒤가 묵직하기만 할 뿐 잘 보지 못하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붉은 것과 흰 것이 교대로 나오는 것이 설사와 다르다."[32]라고 痢疾의 특징을 총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東醫寶鑑】에는 그 양상에 따라 18종의 痢疾을 세분한 記述이 있으나, 이보다는 痢疾 증상을 泄瀉와 구분하여 개괄한 上記 증상을 上記 인용문에서의 痢疾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고름 혹은 피, 혹은 고름과 피가 섞인 것, 혹은 기름때 같은 것, 혹은 糟粕이 없기도 하고 혹은 糟粕이 섞기기도 한 것이 나오고, 통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급히 대변을 보고 싶으나 잘 나오지 않고, 붉은 것과 흰 것이 교대로 나오는 증상이 여러 사람에게 비슷하게 유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본 인용문에서 제시한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이라 할 수 있다.

③【內景篇·小便·治痢要訣】

"(痢疾을 앓으면서) 脈이 弦한 경우는 風을 제거해야 하므로 秦艽과 防風 또는 敗毒散을 쓴다." [33]

【考察】이 인용문에서는 "痢疾을 앓으면서 脈이 弦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人蔘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문맥상 구체적 適應證은 痢疾 증상에 脈弦 증상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痢疾의 구체적 증상에 대해서는 바로 앞 ②번 항목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에 脈弦한 증상만 덧붙인 것, 즉 "고름 혹은 피, 혹은 고름과 피가 섞인 것, 혹은 기름때 같은 것, 혹은 糟粕이 없기도 하고 혹은 糟粕이 섞기기도 한 것이 나옥, 통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급히 대변을 보고 싶으나 잘 나오지 않고, 붉은 것과 흰 것이 교대로 나오면서 脈弦한 증상"이 이 인용문에서 제시한 後世方 人蔘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이라 할 수 있다.

3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535-536.
"痢疾 不納飮食者 俗謂之 噤口痢 如頭疼心煩 手足溫熱 此乃毒氣上衝心肺 敗毒散 方見寒門 20g 加蓮肉4g 陳米 100粒 薑三棗二煎服 ~ 治噤口痢心煩 手足熱 頭痛 此乃毒氣上衝心肺所以 嘔而不食 人蔘敗毒散 見上(噤口痢) 加黃連 4g 石蓮肉七枚 陳蒼米300粒 薑三片棗二枚 同煎服"

3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2.
"長幼相似 名曰 疫痢 人參敗毒散 見上 加陳皮 白芍藥煎服 或薑茶湯以防之"

3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31.
"泄瀉之證 水穀或化 或不化 幷無努責 惟覺困倦. 若滯下則不然 或膿或血 或膿血相雜 或腸垢 或無糟粕 或糟粕相雜 雖有痛 不痛之異 而皆裏急後重 逼迫惱人 赤白交下 爲異"

3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6.
"脈弦者 去風 秦艽 防風 又敗毒散"

www.kci.go.kr

④【外形篇·腰·風腰痛】

“風熱이 원인이 된 腰痛의 경우에는 敗毒散에 續斷과 天麻와 木瓜와 薄荷를 가하여 쓴다.”[34]

【考察】이 인용문에서는 “風熱이 원인이 된 腰痛에 사용한다.”라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같은 항목에서 “風이 腎을 상하게 해서 발생한 腰痛은 혹은 왼쪽 혹은 오른쪽이 아파 한 군데 정해진 곳에서 아프지 않으며, 두 다리가 땅긴다.”라고 風腰痛의 구체적 증상은 제시하고 있다[35]. 따라서 風熱腰痛의 구체적 증상은 上記한 風腰痛 증상에 熱證이 추가된 증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風熱腰痛의 구체적 증상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뿐 아니라 ‘腰痛門’ 전체에 더 이상의 증상 설명이 없다. “證名과 處方이 모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證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36]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風熱腰痛을 다른 醫書를 통해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그 證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결국 “證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따라서 “風熱이 원인이 된 腰痛”은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증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⑤ 【外形篇·足·脚氣治法】

“濕熱이 陽明經에 있을 때에는 大黃左經湯이나 혹은 加味敗毒散을 쓴다 ~ 三陽經이 손상되어 생긴 脚氣 때문에 다리가 붉게 달아오르고 열이 나고 붉게 붓고 惡寒과 發熱이 나고 땀이 저절로 나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人蔘敗毒散 40g에 大黃과 蒼朮 각 4g을 추가한다.”[37]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은 “三陽經이 손상되어 생긴 脚氣 때문에 다리가 붉게 달아오르고 열이 나고 붉게 붓고 오한과 발열이 나고 땀이 저절로 나는 증상”이다.

⑥【外形篇·後陰·腸風臟毒】

“腸風으로 下血하는 경우는 반드시 대변보다 피가 먼저 나온다. 이를 近血이라고 하는데 피 색깔이 맑고 선명하다. 敗毒散을 쓰는 것이 좋다.”[38]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人蔘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은 “大便을 볼 때 出血하는 증상 중에서 大便보다 피가 먼저 나오고 피 색깔이 맑고 선명한 증상”이다.

⑦【雜病篇·寒(上)·傷寒表證】

“傷寒病에 처음 걸린 지 2~3일이 되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惡寒이 나고 발열하는 증상은 모두 表證이다 ~ 表證에는 香蘇散이나 十神湯이나 人蔘敗毒散이나 香葛湯이나 葱白散이나 參蘇飮이나 芎芷香蘇散이나 小靑龍湯이나 神朮散이나 消風百解散을 쓰는 것이 좋다 ~ 傷寒과 유행성 질환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뻑뻑하고 몸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또 傷風으로 기침하고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탁한 증상을 치료한다 ~ 荊芥穗와 防風 같은 양을 추가한 처방을 人蔘敗毒散이라고 한다.”[39]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人蔘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은 “傷寒病에 처음 걸린 지 2~3일이 되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惡寒이 나고 발열하는 증상”이다.

⑧【雜病篇·寒(下)· 感寒及四時傷寒·交加散】

“五積散의 藥性은 따뜻하고 敗毒散의 藥性은 서늘하다. 사소한 감기에 걸렸을 때 이 두 가지 처방을 반씩 합해 달여 먹으면 邪氣가 저절로 흩어진다.”[40]

---

3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786.
“風熱腰痛 敗毒散 加續斷 天麻 木瓜 薄荷”

3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786.
“風傷腎而腰痛者 或左或右 痛無常 所引兩足强急”

36) 李濟馬 著, 권건혁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55.
“有證有方而 執證未分明”

3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848.
“濕熱 ~ 在陽明則 宜大黃左經湯 或加味敗毒散 ~ 治三陽經脚氣流注 脚踝煩熱 赤腫 寒熱自汗 人蔘敗毒散40g 加大黃蒼朮各4g 剉作一貼 入薑三片 薄荷7葉 同煎服”

3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902.
“腸風下血 必在糞前 是名近血 色淸而鮮 宜用敗毒散”

39)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090-1091.
“傷寒 初得病二三日 頭痛 身體痛 惡寒 發熱 皆表證也 ~ 表證 宜香蘇散 十神湯 人蔘敗毒散 香葛湯 葱白散 參蘇飮 芎芷香蘇散 小靑龍湯 神朮散 消風百解散 ~ 治傷寒時氣發熱頭痛 項强 肢體煩疼 及傷風咳嗽 鼻塞聲重 ~ 加荊芥穗 防風等分 名曰荊防敗毒散”

www.kci.go.kr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사소한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용한다.”라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人蔘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 適應證을 파악하려면 ‘사소한 감기’ 증상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앞 ⑦번 항목에서 살펴본 傷寒 表證 증상과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荊防敗毒散 適應證 증상을 찾아본 ①번과 ②번 항목에서 살펴본 傷寒 증상에 “사소한 감기 증상”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가로 더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⑨【雜病篇·暑·暑風】

“暑風과 暑厥은, 단지 손발에 경련이 있는 경우는 暑風이고, 손발이 싸늘한 경우는 暑厥이다. 모두 二香散이나 人蔘羌活散[41](처방은 小兒門을 보라)에 香薷散을 합방하여 복용한다.”[42]

【考察】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人蔘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은 “손발에 경련이 있는 暑風 증상이나 손발이 싸늘한 暑厥 증상”이다. 그런데 바로 이 인용문의 바로 앞 문장에서 “더위를 먹은 데다가 風에 상해 경련하면서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43]를 暑風 증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인용문에서 제시한 구체적 適應證은 “더위를 먹은 데다가 風에 상해 경련하면서 人事不省하는데 손발에 경련만 있거나 혹은 손발이 싸늘하기도 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荊防敗毒散 加減方(人蔘羌活散)과 香薷散을 함께 복용했기 때문에 이 증상을 荊防敗毒散 加減方이 전적으로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⑩【雜病篇·浮腫·水腫治法】

“陽水 증상에는 八正散(처방은 小便門을 보라)이나 人蔘敗毒散(처방은 寒門을 보라)에 麻黃과 防風과 黃芩과 梔子를 추가하여 복용한다.”[44]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陽水 증상에 사용한다.”라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人蔘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같은 ‘浮腫門’의 ‘浮腫形證’ 항목에서 “陽水는 대부분 外因으로 인해 생기는데, 물을 건너거나 비를 맞거나 혹은 風· 寒·暑·濕에 상하여 발생한다. 증상은 먼저 상체인 어깨와 등과 손과 팔이 먼저 붓고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고 大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다.”[45]라고 陽水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인용문에서 제시한 後世方 人蔘敗毒散의 구체적 適應證은 “상체인 어깨와 등과 손과 팔이 먼저 붓고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고 大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⑪【雜病篇·內傷·瘟疫治法】

“瘟病 초기에 증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먼저 敗毒散으로 치료한 후 어떤 경락에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서 그 경락에 맞게 치료해야 한다.”[46]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瘟病 초기에 증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먼저 敗毒散을 쓴다”라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瘟病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後世方 荊防敗毒散 適應證을 살펴볼 때 이미 모두 살펴보았다. 즉 다양한 瘟病 증상이 이미 四象方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추가로 더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4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37.
“五積散性溫 敗毒散性凉 凡人遇些少感冒 取兩藥對半合和煎服 則邪氣自散矣”

41) 人蔘羌活散은 이름만 보면 敗毒散 종류가 아닌 것 같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人蔘敗毒散에 天麻와 地骨皮가 추가된 處方이기 때문에 人蔘敗毒散 加減方으로 판단하고 본 항목에서 살펴보았다.

4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150-1151.
“暑風 暑厥者 但以手足搐搦 爲風, 手足逆冷 爲厥 並宜二香散或人蔘羌活散 方見小兒 合香薷散見下暑月通治藥 服之”

4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150-1151.
“中暑復傷風 搐搦不省人事”

44)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375.
“陽水 宜八正散 方見小便 或人蔘敗毒散 方見寒門 加麻黃防風 黃芩 梔子服”

45)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374.
“陽水 多外因涉水冒雨 或感風 寒 署 濕, 其證 先腫上體, 肩背手臂熱,渴而二便閉”

46)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50.
“溫病初 證未端的 先以敗毒散治之 看歸在何經 隨經施治”

www.kci.go.kr

⑫【雜病篇·諸瘡·諸般惡瘡】

“여러 가지 종류의 부스럼이나 나쁜 종기 때문에 고름과 피가 나오고 아프고 가려울 때는 凉血飮이 좋다. 또 平血飮과 人蔘敗毒散을 합방하여 쓰는 것도 좋다 ~ 平血飮은 여러 가지 부스럼이나 종기 때문에 몸 전체에서 고름과 피가 나오고 아프고 가려울 때에는 人蔘敗毒散과 합방한 후 生薑과 薄荷와 生地黃과 麥門冬을 추가하여 달여 복용한다.”[47]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은 “여러 가지 종류의 부스럼이나 나쁜 종기 때문에 고름과 피가 나오고 아프고 가려운 증상”이다. 그런데 荊防敗毒散 加減方과 凉血飮을 함께 복용했기 때문에 이 증상을 荊防敗毒散 加減方이 전적으로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⑬【雜病篇·小兒·發熱三朝】

“發熱이 傷寒에 걸렸을 때와 비슷하게 나서 어떤 증상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升麻葛根湯이나 蔘蘇飮이나 (두 처방은 寒門을 보라) 加味敗毒散으로 邪氣를 발산시킨다 ~加味敗毒散은 柴胡, 前胡, 羌活, 獨活, 防風, 荊芥, 薄荷, 枳殼, 桔梗, 川芎, 天麻, 地骨皮 各 三分을 썰어서 一貼으로 한 후 紫草, 蟬殼, 紫蘇, 麻黃, 葱白을 넣고 달여서 복용하여 땀을 낸다. 本方에서 人蔘과 茯苓을 뺀 이유는 火를 도울까 염려스러워서이다.”[48]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은 “열이 나는데 천연두로 인한 發熱인지 傷寒으로 인한 發熱인지 구별되지 않을 때”이다. 그런데 같은 ‘發熱三朝’ 항목에서 “천연두는 역시 유행성 열병의 일종으로 傷寒과 비슷한 종류이다.”[49]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인용문에서 제시한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適應證을 천연두 뿐만 아니라 “傷寒과 유사한 發熱 증상” 전체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⑭【雜病篇·小兒·發熱時吉凶證·加味六一散】

“熱毒이 太盛해서 헛소리를 하고 속에 열이 나는 듯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또 발진이 검붉고 속으로 함몰된 것을 치료한다. 滑石 240g(곱게 갈아서 물에 띄운 후 물위에 뜬 고운 입자만 가려낸 것), 甘草(곱게 갈은 것) 24g, 辰砂 12g(곱게 갈아서 물에 띄운 후 물위에 뜬 고운 입자만 가려낸 것), 片腦 1.2g(별도로 가루 낸 것), 이상의 약들을 함께 섞어서 ~ 發熱 초기에는 加味敗毒散에 타서 먹으면 독을 풀어주어 발진이 적게 나게 한다. 자줏빛 발진이 나는 데도 효과가 있다.”[50]

【考察】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은 “헛소리를 하고 속에 열이 나는 듯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또 발진이 검붉고 속으로 함몰된 증상 초기의 發熱 증상”이다. 그런데 이 증상에는 荊防敗毒散 加減方이 아니라 滑石과 朱砂 등으로 이루어진 加味六一散이 主處方이기 때문에 荊防敗毒散 加減方이 이 증상을 전적으로 치료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므로 최종 결정은 후속 연구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검토 가능한 후보 證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⑮【雜病篇·小兒·附斑疹】

“麻疹은 升麻葛根湯(처방은 寒門을 보라)에 葱白과 紫蘇葉을 추가하여 쓰는데, 麻疹의 初起에 아주 좋은 처방이다. 혹 蘇葛湯을 써도 좋고, 혹은 加味敗毒散

47)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568.
“諸般遍身瘡 及惡瘡 出膿血痛痒 宜凉血飮 又平血飮合人參敗毒散~平血飮 治諸瘡 遍身出膿血痛痒 ~ 與人蔘敗毒散合和 如生薑薄荷生地黃麥門冬 煎服”

48)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768-1769.
“發熱似傷寒 未辨疑似間 且與升麻葛根湯 蔘蘇飮 二方並見寒門 加味敗毒散 解表 ~加味敗毒散 柴胡 前胡 羌活 獨活 防風 荊芥 薄荷 枳殼 桔梗 川芎 天麻 地骨皮 各三分 剉作一貼 宜加紫草 蟬殼 紫蘇 麻黃 葱白煎服 表汗之 本方除參苓 恐助火也”

49)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768.
“痘瘡 亦時氣之一端. 大抵與傷寒相類”

50)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769.
“治熱毒太盛 狂言煩渴 及痘瘡紅紫黑陷 滑石六兩 硏水飛甘草細末六錢 辰砂水飛三錢 片腦三分 另硏別入 右和勻 ~ 發熱之初 用加味敗毒散調下 能解毒稀痘 出痘紅紫者 亦效”

www.kci.go.kr

(처방은 위를 보라)을 써서 발산시키는데, 땀이 난 후 몸이 서늘해지면서 붉은 반점이 저절로 사라진다."[51]

【考察】 이 인용문에서는 "麻疹 초기에 사용한다"라고 언급했을 뿐 後世方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같은 '小兒門'의 '附斑疹' 항목에서 "麻疹은 최고로 작아서 삼씨처럼 눈에 잘 안 띄게 나타나고, 꼭대기가 평평하고 부드러워서 손가락으로 만져도 느낌이 별로 없고 속에 맑은 물이 있다."[52]라고 麻疹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인용문에서 제시한 人蔘敗毒散 加減方의 구체적 適應證은 "최고로 작아서 삼씨처럼 눈에 잘 안 띄게 나타나고, 꼭대기가 평평하고 부드러워서 손가락으로 만져도 느낌이 별로 없고 속에 맑은 물이 있는 것이 피부에 솟아나는 麻疹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15개 항목 중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 없는 ⑧번, ⑪번 항목과 구체적 病證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④번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12개의 항목에서 제시된 後世方 人蔘敗毒散 및 그 加減方의 適應證을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증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東醫寶鑑』에 수록된 人蔘敗毒散과 그 加減方 중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

연번	東醫寶鑑 篇名	證狀
1	【內景篇·大便·噤口痢】	痢疾을 앓으면서 구토하고 飮食을 먹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에 열이 나는 증상
2	【內景篇·大便·疫痢】	고름 혹은 피, 혹은 고름과 피가 섞인 것, 혹은 기름때 같은 것, 혹은 糟粕이 없기도 하고 혹은 糟粕이 섞기기도 한 것이 나오고, 통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급히 대변을 보고 싶으나 잘 나오지 않고, 붉은 것과 흰 것이 교대로 나오는 증상이 여러 사람에게 비슷하게 유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
3	【內景篇·小便·治痢要訣】	고름 혹은 피, 혹은 고름과 피가 섞인 것, 혹은 기름때 같은 것, 혹은 糟粕이 없기도 하고 혹은 糟粕이 섞기기도 한 것이 나옥, 통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급히 대변을 보고 싶으나 잘 나오지 않고, 붉은 것과 흰 것이 교대로 나오면서 脈弦한 증상
4	【外形篇·足·脚氣治法】	三陽經이 손상되어 생긴 脚氣 때문에 다리가 붉게 달아오르고 열이 나고 붉게 붓고 오한과 발열이 나고 땀이 저절로 나는 증상
5	【外形篇·後陰·腸風臟毒】	대변을 볼 때 출혈하는 증상 중에서 대변보다 피가 먼저 나오고 피 색깔이 맑고 선명한 증상
6	【雜病篇·寒(上)·傷寒表證】	傷寒病에 처음 걸린 지 2~3일이 되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惡寒이 나고 발열하는 증상
7	【雜病篇·暑·暑風】	더위를 먹은 데다가 風에 상해 경련하면서 人事不省하는데 손발에 경련만 있거나 혹은 손발이 싸늘하기도 한 증상
8	【雜病篇·浮腫·水腫治法】	상체인 어깨와 등과 손과 팔이 먼저 붓고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9	【雜病篇·諸瘡·諸般惡瘡】	여러 가지 종류의 부스럼이나 나쁜 종기 때문에 고름과 피가 나오고 아프고 가려운 증상
10	【雜病篇·小兒·發熱三朝】	傷寒과 유사한 發熱 증상
11	【雜病篇·小兒·發熱時吉凶證·加味六一散】	헛소리를 하고 속에 열이 나는 듯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또 발진이 검붉고 속으로 함몰된 증상 초기의 發熱 증상
12	【雜病篇·小兒·附斑疹】	최고로 작아서 삼씨처럼 눈에 잘 안 띄게 나타나고, 꼭대기가 평평하고 부드러워서 손가락으로 만져도 느낌이 별로 없고 속에 맑은 물이 있는 것이 피부에 솟아나는 麻疹 초기 증상

Ⅲ. 結 論

四象方 중 하나인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을 문헌에 근거해 확장하기 위해『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少陽人 및 後世方 荊防敗毒散證을 검토하고, 또『東醫寶鑑』에 收錄된 後世方 荊防敗毒散證 및 荊防敗毒散 加減方證, 人蔘敗毒散證 및 人蔘敗毒散 加減方證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51)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797-1798.
"麻疹 以升麻葛根湯 方見寒門 加葱白 紫蘇葉 乃麻疹初起之神方也 或用蘇葛湯 亦佳 或以加味敗毒散 方見上 表之汗後身凉 紅痕自滅"

52)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797.
"麻子最小 隱隱如麻子 頂平軟不碍指 卽有淸水"

www.kci.go.kr

1.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傷寒과 관련된 증상 3종류, 嘔吐 증상 1종류, 瘧疾 증상 1종류를 少陽人 荊防敗毒散 適應證으로 제시하였다.
2. 『東醫寶鑑』에 수록된 後世方 荊防敗毒散證 중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으로 搭頸腫과 관련된 증상 1종류, 瘟疫과 관련된 증상 5종류, 大頭瘟과 관련된 증상 6종류를 선별할 수 있었다.
3. 『東醫寶鑑』에 수록된 後世方 荊防敗毒散 加減方證 중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으로 咽喉痛과 관련된 증상 1종류, 隱疹과 관련된 증상 1종류를 선별할 수 있었다.
4. 『東醫寶鑑』에 수록된 人蔘敗毒散과 그 加減方 중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으로 痢疾과 관련된 증상 3종류, 脚氣와 관련된 증상 1종류, 腸風臟毒과 관련된 증상 1종류, 傷寒 表證과 관련된 증상 1종류, 暑風과 관련된 증상 1종류, 水腫과 관련된 증상 1종류, 惡瘡과 관련된 증상 1종류, 천연두와 관련된 증상 2종류, 麻疹과 관련된 증상 1종류를 선별할 수 있었다.
5. 『東醫寶鑑』에서 선별한 少陽人 荊防敗毒散 적용 가능 후보 證狀을 총괄하면 모두 26종류인데, 이들은 모두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陽人 荊防敗毒散證으로 언급하지 않은 증상들이다. 따라서 이 증상들은 문헌에 근거해 少陽人 荊防敗毒散 適應證을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Ⅳ. 參考文獻

<논문>

1.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에 관한 硏究 -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Vol.24(3). p.28, 29. pp.27-47.
2. 이필우, 윤창렬. 東醫壽世保元 인용문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제12권 2호. p.84.

<단행본>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6, 681, 682, 683, 685, 692, 700, 701, 716, 724. pp.696-697,
2. 李濟馬 著, 권건혁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55.
3. 許浚 著, 진주표 註釋.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15, 531, 542, 546, 597, 715, 786, 802, 848, 902, 1137, 1374, 1375, 1449, 1450, 1453, 1455, 1568, 1768, 1769, 1797. pp.535-536, 1090-1091, 1150-1151, 1768-1769, 1797-1798, 2175-2205.

www.kci.go.kr